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2. 2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'뮌헨 안보회의'에서 중국에 홍해 및 인권 문제 제기
 - 2.17 독일에서 개최된 '뮌헨안보회의'에서 「데이비드 캐머런」 英 외무장관이 「왕이」 中 외무장관에게 중국이 예멘叛軍의 홍해 공격을 중지하도록 이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으며 더불어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제기
 - ※ 이에 대해 「왕이」 中 외교부장은 “양국의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 보장 증진과 평화유지를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”고 강조
- EU, 후티反軍 공격 재개에 홍해 사수를 위한 합동 군사작전 승인
 - 2.20 언론은 예멘 후티反軍이 일주일 만에 공격을 재개하며 처음으로 상선을 침몰시키는 등 홍해 불안이 가중되자, EU가 해양 안보 수호를 위해 합동 군사작전 '아스피데스'(Aspides)*를 승인했다고 보도
 - * 그리스어로 '방패'를 의미하는 同 작전은 獨·佛·伊 등 합정이 참여하며 순찰을 통한 안전 운항 보장이 목적인 만큼 美 英과 달리 후티反軍 근거지를 직접 공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

미 주

- 美, 바이든 대통령 총기 규제 촉구
 - 2.15 언론은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이 14일 발생한 캔자스市 슈퍼볼 총격사건을 개탄하며 성명을 통해 돌격소총 금지, 대용량 탄환 제한, 신원조회 강화 등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고 보도
 - ※ 슈퍼볼 우승팀 '캔자스시티 치프스' 축하행사에서 100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격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
- 캐나다, 테러 시도하는 극단주의 성향 미성년자 증가 우려
 - 2.19 외신은 캐나다 경찰이 온타리오州에서 테러 조직과 연계해 폭발물 등으로 유대인 살해를 계획한 10대 미성년자들을 테러 조장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, 청소년의 폭력적인 극단주의 증가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또한, 온라인을 통한 급진화가 미성년자 테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부언

중 동

○ 이란, '천연가스관 폭발'을 파괴공작 테러로 규정

- 2.15 언론은 이란 서부 차하르마할-바르티아리와 파르스 지역의 천연가스관이 폭발로 파열돼 일부 지역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으며, 이번 폭발을 사보타주(파괴공작) 테러로 규정했다고 보도

※ 폭발이 일어난 가스관은 총길이 1,270km이며, 페르시아만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의 중심부인 아살루예에서 북부 카스피해 도시로 가스를 운반

○ 아랍연맹, 이스라엘 60개 조직 테러단체 지정

- 2.17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알쿠즈 구시가지의 '알 아크사' 모스크 단지에 대한 반복적 침입과 서안지구 전역의 불법 정착촌 확장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, 60개 이스라엘 조직과 극우 정착민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

※ 아랍연맹 회의에서 추가로 대량학살 지지에 연루된 이스라엘 22명에 대한 법적조치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(UNRWA) 지원을 중단한 국가들에게 재고할 것을 촉구

아 · 태평양

○ 필리핀, 남부서 정부軍과 이슬람 叛軍 교전

- 2.19 언론은 필리핀 남부에서 정부軍과 이슬람 무장세력 '다울라 이슬라미야(DI)'와의 교전이 발생하였으며, 이로 인해 군인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으며 DI무장대원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

※ DI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마라위市 폭탄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로, 필리핀軍은 대테러 작전으로 DI대원 10여명을 사살하는 등 소탕작전을 진행 중

○ 탈레반, 아프가니스탄 인권 논의 관련 UN 콘퍼런스 불참

- 2.20 언론은 탈레반이 지난 18~19일 아프가니스탄 內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UN 콘퍼런스에 최초 참석을 예정했다가 개최 하루 前 참여 거부를 통보하면서 불참했다고 보도

※ 이후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“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그 누구도 강압할 수 없다”며 아프가니스탄 內 상황을 他국과 논의하는데 불편한 기색을 표출

LeJ, 파키스탄 시아파 무슬림 겨냥 폭탄테러

- '13.2.16 18:00경 파키스탄 서남부 퀘타市 하자라 마을에서 시아파 무슬림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, 89명 사망, 200여명 이상 부상
 - 테러범들은 주말 오후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을 노리고 인력거에 장착된 폭탄*을 원격조종으로 폭발, 시장 상점들이 파괴되고 2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수 사상자 발생
 - * 폭발물 800kg이 붕괴된 건물 기둥 근처 물탱크 안에 숨겨졌던 것으로 확인
 - 同 지역은 파키스탄 인구 중 약 15%를 차지하는 시아파 무슬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종파갈등에 따른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
- 사건 직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'라쉬카르 에 장비(LeJ)'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- 同 테러에 대해 UN은 “테러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과 진상규명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< 라쉬카르 에 장비(LeJ, Lashkar-e-Jhangvi) >

- (목 표) 파키스탄 내 샤리아법에 근거한 수니파 이슬람국가 건설('96.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3.3), 미국('03.1), 캐나다('01.8)
- (조직규모) 약 300명 이하(美 국무부 추정)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, 파키스탄 탈레반(TTP) 등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(펀자브·발루치스탄주, 신드주 카라치) 및 인도
- (활동수법) 시아파 및 기독교도 대상 학살, 암살, 납치 등
- (주요테러) ① '14.1 발루치스탄주 버스 대상 폭탄테러(사망 24, 부상 40)
 ② '15.8 펀자브주 내무장관 대상 자폭테러(사망 16, 부상 22)